

## 혐오의 시대 평등의 약속

미류(인권운동사랑방)

기록: 김태은(가톨릭대)

아 이게 시작이 된거군요.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2021 두 번째 강의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이고요. 지금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혐오의 시대, 평등의 약속>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사회가 혐오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를 할 테고. 평등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대체로 동의를 할 텐데 왜 그 사회가 안 바뀌고 있을까? 저는 혐오의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거냐? 그리고 평등을 약속한다는 게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에 대해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난민인권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난민인권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할 수 없고. 어쨌든 오늘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혐오 이야기들을 더 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 [혐오의 시대 평등의 약속]

아마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이 포스터의 이미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을 것 같은데요. 빠른 속도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라고 함께 해주셨었는데 지금 이 10만행동 이후에 국회의 벽 앞에서 멈춰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왜 그럴지? 왜 그런지? 같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난민과 차별금지법?]

난민과 차별금지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라는 질문은 사실 부적절한 질문일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난민인권센터에서 마련한 자리이기도 하고. 아마도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그걸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게도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다.

[‘예멘 난민’]

2018년 모두가 기억하듯이 제주도에 상당히 많은 수의 난민들이 예멘에서 들어오면서 한국사회에서 난민이라는 집단이 사회적인 쟁점. 그런 집단으로서 부각이 됐죠. 그 이전에도 같이 살고 있었던 난민이 있었고 혹은 해외에 난민소식들이 간간히 접해지고 있었지만 우리사회의 문제로 본격적으로 다뤄진 건 이때인 것 같아요. 저도 인권운동을 오래했지만 난민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지도 못했고 깊은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서 매년 돌아오는 세계난민의 날 기자회견에 여러 단체가 공동주최로 진행하게 됐고 그때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도 연대발언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왔어요. 저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차별과 혐오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생각을 하면서 갔고. 사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이야기 할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멘난민들이 직접적으로 부딪쳐 있는 쟁점은 체류자격의 문제잖아요 이 사람들을 한국 사회가 공식적으로 체류자격을 인정하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마음으로 한대요가 아니라 실제로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했는데 차별금지법이 없기도 했지만. 차별금지법이 있다고 한들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난민법과 난민관련 제도와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키는 게 역시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서 스스로. 이왕 갈 때에 한마디 하는 게 좋지만 스스로 자신 없기도 해서 준비를 안 하고 갔는데 제가 갔던 기자회견에 사진처럼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피켓을 난민인권센터에서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어쨌든 난민인권센터에서 준비해서 오셨더라고요. 그건 뭘까? 저보다 훨씬 난민들이 실제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 난민인권의 날의 주요한 이슈로 피켓을 준비해온 건 뭘까? 이런 고민들을 사실 이때부터 저도 적극적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제도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니까 상관없나?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이미 설명하지 않아도 느끼게 되는 쏠쏠함 있잖아요? 난민인권단체에서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찾게 되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이런 이슈가 될 때 우리도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했던 쏠쏠함은 뭘까? 그것은 분명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주는 무언가는 아니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어떤 흐름 속에 있는 어떤 씨앗. 혹은 가능성. 혹은 감각들이 분명히 연결을 하고 있었을텐데 그걸 좀 더 잘 찾아야겠다. 라는 고민을 하는 계기였습니다. (차별금지연대와 난민인권센터가 마주친 것은 이시기를..) 그렇죠. 그 전에도 서로 교류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실제로 2018년에 처음으로 평등행진을 했을 때 난민환영문화제를 사전집회로 하면서 같이 많은 것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때였는데요. 그러면서 몇 가지 조금 비슷한 상황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7:00)

### [한국 정부가 지키려 한 것]

하나는 어쨌든 난민이라는 쟁점이 불거지면서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이 당시로서는 사상 최대의 숫자를 기록하는 청원인 달성을 했었죠. “난민법을 폐지하라”. “난민들 받지 말아라” 이런 청원이 있었고. 서울 도심에서 난민을 반대하는 집회들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넘으면 공식적으로 답변하게 되었잖아요. 법무부 장관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난민법 폐지못한다. 왜냐? 국제적 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말들을 했냐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혹시라도 무사증을 악용하는 난민이 없는지. 철저히 차단하겠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가 난민을 잘 관리하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남겼죠. 난민법은 폐지하지 않지만, 난민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다시금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었던거죠. 이것을 보면서 2007년 차별금지법 사태가 떠올랐죠. 원래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 권고 이후에 청와대 차원에서 TF가 꾸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검토를 해서 법무부에서 정부입법 발의한 것이 차별금지법의 최초였습니다. 기본이잖아요. 약간.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정도 법 가지는 것은 기본이었고. 한국사회 민주화역사에서 봤을 때 김대중 정부에 이어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이루었을 때 그 다음 과제로서 자연스럽게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인권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게 국정과제였던거죠 그래서 추진을 했어요. 그리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여러 동성애반대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반대집회를 하고. 정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를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나면요 차별금지법을 어쨌든 제정을 하겠다 대신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을 뺐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하지말라는 법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사유 중에 성적지향과 당시 7가지의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했는데요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출신국가, 언어, 병력, 범죄, 전과 그리고 또 하나 학력이었습니다. 이런 7가지를 어쨌든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여기 적은 것처럼 국회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

서 이때가 2007년이니까. 정부로서는 마지막이었고. 실제로 국회 회기도 2008년에 새로운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 회기도 거의 끝나가는 때예요. 이게 지연돼서 아예 못 만드니 차별금지사유를 빼서 만들겠다.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국제적 위상을 고려했던 거겠죠 민주주의 국가라는 명분. 그 정부는 명분이 중요했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학력을 이유로는 차별해도 된다, 성적지향을 이유로는 차별해도 된다 라는 메시지를 담은 차별금지법이라는 아주 아이러니한 존재를 만들어낸 게 노무현 정부가 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난민법 폐지는 안하겠지만. 난민을 여전히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던. 법무부의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았던 거죠. 이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인권의 명분이 중요했던 거죠. 그걸 위해서 사람은 오히려 버려지더라. (11:31)

### ['난민 반대'와 '동성애 반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공통분모는 실제로 난민반대를 주도했던 단체들이 동성애반대 운동을 하던 단체입니다. 처음 제주도에 예멘난민반대 대책위원회 꾸려졌잖아요 거기보면 바른 가족. 에이즈 이런 이슈들을 다루는 단체들이 다 모여있어요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면서 힘을 결집해왔던 이들이 난민반대운동도 주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현상은 부천에서 문화다양성 조례를 부천시의회가 제정하려고 했었어요 문화다양성 조례는 부천시는 한국에서도 이주민들이 일찍 자리를 잡았던 곳이었고. 이미 문화적으로 그런 것이 있던 곳이었고.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부천지역에 어떤 의의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동성애반대 무슬림 반대 이 문화다양성 조례가 성소수자를 허용하는 것이며, 무슬림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천을 망칠거다. 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면서 거리에서 행진을 하고 집회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동성애, 성소수자, 성적 지향, 무슬림, 난민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는 전혀 다른 쟁점인 것 같지만 실제로 반대하는 세력은 하나로 아주 잘 뭉쳐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를테면 명시적으로 동성애 난민 관련된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2014년이었나? 인권교육지원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당시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유승민이 대표발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도 철회시켰어요 같은 세력입니다. 인권교육을 활성화, 강화하면 동성애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냥 일관돼요. 국가인권위원회 법도 엄청 많이 개악이 됐는데, 국가인권위원회 기능 중에 기업에 대한 인권 관련된 업무를 강화하는

이런 개정안을 냈는데, 기업인권을 강화하면 기업들이 동성애 관련된 광고를 더 하고..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율길 수가 없어요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철회된 조례나 아시겠지만, 충남도 인권조례는 아예 폐지되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문명에 놓인 법과 제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실 이게 성소수자와 무슬림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인권현실 자체를 후퇴시키는 중요한 전환이 되고 있었던 거죠. (14:33)

[혐오]

이런 공통분모로 많은 사람들이 혐오를 지목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혐오라는 말을 다양한 의미로 어떤 의미에서는 남용하다보니 정말 우리가 무엇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것인가? 혹은 무엇을 바꾸고 싶은 것인가? 길을 잃은 시간이 혐오를 문제로 지목하는 과정이었다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혐오라는 말로 말에 담긴 어떤 뜻은 영어로 바꿔보면 대개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요. 좌석이 2개인. 옆 자리에 (오늘 들으신 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겠네요) 터번을 두른 전형적인 무슬림 남성이 앉았다 어쩔 것 같으세요? (뭔가 한번은 움츠러들 것 같은) 약간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들죠. 그것은 뭔가 굳이 뭔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드는 감정이잖아요 그게 ‘혐오’라고까지 붙일 것은 아니지만 긴장되는 느낌. 뭔가 낯선 것. 두렵다 잘 모를 때의 불안함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그것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혐오라는 감정인데요 이것은 사실 인간이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화적으로 키워온 본능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영어로는 disgust 구역감 같은 거죠. 피하고 싶은 마음. 이를테면 배설물이나 분비물 같은 것들을 보거나 냄새를 맡았을 때 ‘앗, 피해야지’ 사실 그 색깔이 아무 특별한 의미도 없고. 그 냄새가 꼭 거기서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적극적으로 몸을 피하거나 돌리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까이 가면 병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세균도 많고. 그런 식으로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형성된 본능적인 감정이고 그래서 이게 감염병과 관련해서 대개 많은 발전을 해옵니다. 실제로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엄청나게 많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들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우린 그걸 부인하지만. 그런데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또 달라요 이게 그냥 바로 만나버리면 서로 면역체계가 안됐기 때문에.

서로 병을 나을 수 있고. 인류는 그런 전염병의 역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하게 되는 어떤 감정들이 있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동시에 그것을 사회적으로 다스리는 기술 또한 발전시켜 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긴장되는 느낌이 들 때 힐끗 한번 쳐다보는 사람이 있을테고. 괜찮아 하면서 다시 스스로 위안시키는 사람이 있을테고. 정말 안절부절 못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본능 다음의 영역이거든요 사회가 그 낯설음을 어떻게 다스리게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행동들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될 때 ‘포비아’가 생깁니다. 포비아는 약간 정신의학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위험 반응이 뭔가 비합리적으로 강화되면서 무섭고 두려운 이런 상태가 되는 걸 포비아라고 하는데 역시 한국어로 번역하면 혐오입니다. 호모포비아 제노포비아 이런 것들이 인종혐오, 성소수자 혐오 이런 것들의 번역어잖아요 이런 것은 이유 없이 무섭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유 없는 상태로 유지되는 거죠. 에이즈포비아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B형간염 바이러스가 대개 많잖아요. B형간염 바이러스와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HIV는 정확히 전염경로가 똑같거든요 체액과 혈액을 통해서 순환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옆자리에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한 사람이 앉았다고 해서 피하고 싶거나 괜찮나?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 옆자리에 에이즈 환자로 알려진 어떤 사람이 앉아있어. 그러면 당연히 다르겠죠 감염 가능성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유지되는 거죠. 이 사이에는 사실 과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과학적 정보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공유되는지 혹은 그래서 대처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B형간염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그렇지 미국에 가면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두려운 바이러스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드물거든요. 한국처럼 흔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도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차별이 심했어요 그래서 채용 전 직장검사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채용 전에 검진해서 B형간염 있으면 채용 취소하고. 명백한 차별이죠.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데 아무런 위험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었고. 그때는 그랬던 거죠. 그런 것들이 포비아라면. 이것을 좀 더 넘어서서 이 사람은 에이즈 감염인이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이고. 결국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짜로 치료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너 나가!” 라고 하면서 적대의 감정. 증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선동 그 감정은

‘hate’ 라고 합니다. 국제인권기구들에서 주로 다루는 혐오표현은 주로 hate죠. 혐오 표현도 hate speech 라고 하죠. 이 혐오는 이렇다면 ‘어 긴장해! 피하고 싶어’ 보다는 적극적으로 조직할 때 형성되는 감정인거죠. (22:00)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혐오에 덧붙여서 2015, 2016년을 거치면서 한국사회가 여성혐오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의 투쟁 덕분이죠. ‘미소지니’ 라는 말은 무슨 포비아. 무슨 헤이트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고유한 어떤 어원을 갖는 독자적인 뜻을 갖는 언어죠. 이것은 사실 혐오의 감정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성차별적인 문화나 사회구조 자체에 더 초점이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미소지니’를 그냥 ‘미소지니’로 쓰는 분들도 있죠. 이게 이런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혐오뿐만 아니라, 모든 비남성. 이 사회에서 보편인간으로 여겨지지 못했던 타자에 대한 혐오의 구조와도 맞물려 있는데, 이것을 여성혐오라고 번역하니까. 이 모든 혐오의 의미망이 뒤섞이면서 뭐에 대해서 “이건 여성혐오야” 라고 시작하면 “난 여성을 미워하지 않아” 어떤 증오를 선동하는 말을 하고 있어서 제지하려고 하면 “아니 두려울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계속 몰타기와 무엇을 문제삼아야 될지 계속 미끄러지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어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국회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 몇 차례 발의됐었어요. 저는 인권운동가로서 지금 한국사회에서 혐오표현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아직은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국회의원도 혐오표현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법들을 발의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국회에서 동성애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런 인사청문회가 계속 되는. 이 사이의 간극. 이 혐오라는 것의 의미가 형해화 되어버리는. 오히려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사회가 혐오를 문제로 인식해왔던 거는 2000년대 후반이거든요. 조금 결정적이었던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 사이트에서 518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멸칭과 (말로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이미지들. 이런 어떤 걸 놀이처럼 하는. 이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악을 한 거죠. 518에 대한 입장을 떠나서 어떻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혹은 유가족에 대해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나? 그런데 그걸 하는 사이트가 일베였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서 사회가 일베를 파헤쳤어요. 알고 보니 청년실업이 너무 심각해서 일자리 못 구하고 루저들의 모임이고 일베 회원 중에는 의사도 있고 기자도 있고 이런 게 뉴스가 될 정도로 대개 일탈적인 문화라고

여겨졌었어요. 처음에 한국사회에서 혐오가 제기될 때는. 그리고 당시에 ‘된장녀’, ‘김치녀’ 이런 표현들도 인터넷상으로 문제가 됐지만. 그것은 별로 사회적으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었죠. 핵심은 혐오 표현이 주인공이 되면서 표현하는 자들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인 게 혐오의 문제라고 이해되기 시작했던 거죠.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 혐오표현이 이런 식으로 문제되다 보니까 중요한 혐오의 표적이 되는 집단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26:07)

### [말이 칼이 된다]

혐오표현의 핵심은 어떤 집단. 그 집단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표현 혹은 증오. 혹은 적대의 감정인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표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혐오표현을 무엇이라고 정의할거냐? 에 대해서 지금 옮긴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냈던 혐오표현 리포트에서 한 건데요 정의의 출발점은 성별이든 장애든 어떤 이유든. 어떤 속성을 가진 집단과 그 구성원에게 그걸 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거나 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이미지를 퍼날르든 조용히 말하든 시끄럽게 말하든 결과적으로 그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하거나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면 그게 혐오표현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사회는 이상한 표현. 도를 넘은 표현. 상대를 공격하는 표현 이런 것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혐오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혐오표현의 해악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심성의 문제라든지 거친 말이 오가기 때문에 문화가 갈등하는.. 이런 수준에서 이야기하지.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27:55)

제가 옮긴 사진은 도쿄에서 있었던 ‘불량성인 추방대회(?)’ 사진이에요. 제목에서 아실 수도 있지만. 불량성인은 일본에 사는 재일조선인을 칭하는 말 중에 하나죠. 역시 혐오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가라고 집회를 하는거예요. 다시 한번 상상을 좀 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동네에 살고 있어요 편의점에 뭘 사러 나가는 길인데 우연히 이 집회를 마주쳤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무섭죠? 그리고 돌아가고 싶겠

조 진짜. 어쨌든 급하면 다른 길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진짜 집으로 가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은 어떨 것 같아요? 이 집회를 주구장창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철야시위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날 같은 길을 별 생각 없이 갔어요 지날 때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네 그런 상황들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어쨌든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겪게 되는 일상이거든요 그 집회가 한번 그러고 나서 끝나더라도 그게 이 사람에게는 한번의 사건으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도쿄에서 이런 집회가 있었잖아요. 제가 일본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도쿄에 사는 조선인들이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 도시에서는 한번도 이런 집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까? 그렇지 않겠죠? 도쿄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 절대 안 듭니다. 내가 일본에 사는 한 언제든 나도 저런 혐오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를 향해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혐오표현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게 너무 중요한 혐오표현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내가 직접 듣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런데 이런 어떤 표적 집단의 구성원이 느끼는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서 한국사회는 혐오가 문제라고 그렇게 떠들어왔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여성혐오 표적이 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지. 성소수자 혐오 반동성에 세력. 사실 너무 이렇게 극악스럽게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아우 머 저렇게까지?’ 사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하지만 그 반동성에 성소수자들이 그럼 한국사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에 대해서 제대로 혐오가 문제라고 하지만.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던거죠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혐오의 표적이 되는 집단은 심리적인 정서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만 겪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에서 권리침해들을 겪게 되거든요

아래 있는 사진은 2016년대에 페미니즘 구호로 많이 확산되었던 “Girls do not need a prince” 각종 굿즈를 통해 팔렸는데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티셔츠가 많은 사람들이 입었죠. 나도 샀어! 하면서 인증샷을 하는데. 한 게임의 성우였던 한 여성이 나도 샀다고 트위터에 올린 순간 그 게임을 이용하는 남성 유저들이 게임 회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면서 그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일자리를 잃은거죠. 물론 그 당시 이 성우는 해고된 게 아니고 서로 해지했다 이렇게 이야기했

지만 쫓겨난거죠 사실은. 안티 페미니스트들의 공격에 의해서.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일자리를 잃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분위기에서 제일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노골적으로 해고하는 정도까지는.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지만 이를테면 다른 이유를 둘러대면서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그런.. 혹은 해고를 하지는 않지만 괴롭히는 경우라든지. 나가줬으면 하는 눈치를 계속 준다든지.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럴 때 싸울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혐오의 표적이 되는 어떤 집단의 성원들은 그런 것들에 대항하기 너무 어렵겠죠 한국에서 성소수자만 하더라도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여전히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 라는 것들이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결과적으로 이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꾸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를 쟁점으로 붙이는데. 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나? 혐오의 표적이 되는 집단의 구성원들의 자유가 제일 침해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란 모든 사람이 정치적인 주체로서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라 할 때, 누군가는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지 못하는 상태를 온전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없겠죠. 사실 이런 민주주의는 허상의 민주주의. 기만적인 민주주의일 뿐이겠죠. 이게 바로 혐오표현의 해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혐오표현 하면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보다는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말을 험하게 하니?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 이런 게 혐오표현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죠. 문제 삼는 거죠. (35:28)

### [혐오의 정치]

그러다보니까 혐오의 정치가 너무 이렇게 쉽게 확산을 하는데. 여혐, 남혐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성혐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혐오라는 의미망이 모호하다 보니까 여성혐오 남성혐오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한남충이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은 아니죠. 그런 말 안 쓰는 게 좋죠. 사람을 벌레에 비유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테면 페미충과 한남충이라는 말을 비교해서 똑같은 혐오다. 라고 이야기 하고 나면 뭐가 남는가? 한남충이라는 말이 아무리 확산된들 남성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를 테면 페미니스트

아닌 자를 모집하는 편의점 광고가 문제된 적이 있는데. 모집공고. 남성 아닌 자를 모집하는 편의점 광고가 상상이 되세요? 한남총이라는 말이 아무리 퍼져도 사실 그런 차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표현이 사람에 대한 무시나 경멸의 뜻을 담은 표현 자체와 표현의 근간이 되는 혐오의 구조를 뒤섞어 이야기하면 똑같은 문제가 되버리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 (시간이 없으니 이준석의 손가락의 논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헛갈리면서 서울 시장 재보궐 선거 할 때 안철수가 후보에 도전하면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서울 쿼어 문화 축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안볼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안볼 권리는 혐오표현인가?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죠. 안볼 권리 있지. 그런 말도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논리가 연쇄되죠? 혐오표현? 그러면 막아야 돼? 표현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그 표현이 낳는. 실제로 어떤 광장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광장의 사용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어쨌든 혐오표현 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차별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갖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혐오표현이라고 하는 거겠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표현을 혐오표현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권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헛갈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것을 혐오표현 규정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리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혐오표현 금지법을 발의하면서도 정작 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 대법원장 와도 동성애 찬성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와도 동성애 찬성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들으면서 계속 반복하고. 그걸 그냥 두는 것이 혐오에 대한 문제 설정이 잘못되어온 역사의 반영이기도 하다라는 거고요. (39:00)

그래서 결과적으로 혐오의 정치가 번성하는 메커니즘은 누군가 적극적으로 분명히 혐오를 선동하는. 증오를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표현의 자유일까? 아닐까? 라고 하면서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 없지. 그러면서 면죄부를 주거나. 하지만 사람을 벌레취급하고 그러면 안돼지 그러면서 고운 말을 쓰자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성차별적인 교육을 하면서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그 선동은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확장하나면 제가 예맨 난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2018년에 두

분이 난민인정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2018년 10월에 1차 심사를 마쳤을 때 한명도 난민 인정이 안됐었어요. 이 이후에 두 분이 인정이 됐었는데요. 그때 난민 대책국민행동에서 이런 성명을 발표합니다. “법무부가 봐라 예멘이 아무도 난민이 아니라고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가짜 난민이라고 주장했던 우리가 옳았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이 난민들은 다 가짜다” 이런 성명을 냈어요. 이런 식으로 승인을 해 주는거죠. 난민인정을 안하는. 난민인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선동을 “아 그래 너희 말이 맞았어” 라는 이런 효과를 냈던 거죠. 이것은 차별금지법에도 그대로 있는 거죠. “너네 말이 맞아! 그래 동성애 반대” 아무도 국회의원이 스스로 그렇게 (몇몇 적극적인 국회의원들은 동성애가 안된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국회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반동성애 세력을 인정하면서 그래 맞아라고 승인을 해주는 꼴인거죠. 그러면서 그제 혐오인줄도 모르고 확산이 되는거죠. 찬성하냐? 반대하냐? 반대하면 계속 철회시켜 주고 계약해주고 이게 혐오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바뀌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혐오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혐오의 표적이 되는 집단. 혹은 구성원의 위치에서 생각한다면 사실 저 사람들이 뭐라고 떠드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말이 칼이 될 때’ 라는 책제목이 있잖아요. 말이 칼이 되기까지. 이 사이를 우리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평등의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는 게 지금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시계가 맞는 건가요? 아 아니네요 지금 어쨌든 50분쯤 한 거 같아서) (42:12)

[차별의 구조 이해하기 / 차별\_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보면요. 말이 칼이 되기까지 그 사이에 작동하는 힘이 차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차별의 구조를 좀 같이 살펴보고. 차별금지법은 그러면 어디쯤에서 뭘 해보겠다는 거냐? 라는 걸 확인하는 이야기들을 남은 시간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많은 차별과 관련된 연구나 조사들을 보면 한국 사회 차별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면 네네네! 8-90%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차별이 심각하냐? 하면 성차별 학력차별 뽑는 것들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차별을 받아보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푹 떨어져요. 2021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항목에서도 비슷한

게 있는데요. 차별받은 경험이 지난 1년 동안이라는 단서가 있지만 응답한 사람이 30%도 안 되게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를테면 성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성별비율은 당연히 여성이 많겠죠? 그 여성 중에 본인이 당해봤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으로 살면서 차별을 한번도 안받아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사회에서? 정말 지극히 희귀한 비율로나 가능하겠죠. 실제로 응답이 그렇게 낮아지는 것은 내가 차별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고, 특히나 차별받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차별 심각해. 우리나라 다 차별이야” 그런데 그 차별을 내가 받는 것은 아니고 남이 당하는 일이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차별받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많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이를테면 한 뮤지션이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었는데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체육시간이면 선생님이 “너는 그냥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다른 애들하고만 체육활동을 한 거예요 그 때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대요. 그런데 왜 기분 나쁜지 몰라서 말을 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기분은 좋지 않았어. 어떤 선생님은 체육활동 하다가 문제되는 일 생길까봐 “너 그냥 있어” 어떤 선생님은 “너 정말 흑시라도 아플 수 있으니까 가만있어” 걱정하는 마음으로 했겠죠. 하지만 똑같죠. 대개는. 나는 분명 같이 될 수 있는데. 저런 체육활동 나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무관하게 그냥 나는 제외되는. 이 경험이 사실 차별이잖아요. 내가 체육활동 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날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 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단지 그런 병력이라는 이유로 아예 제외하는. 그런 경험들이 당연 기분 나쁘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라고 느끼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보통은 일단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어떤 사람은 언어를 찾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잊고 잊어서 난 괜찮아 라고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해석할 언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의 언어는 차별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차별하는 입장에서의 언어가 이 사회의 주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차별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지만. 이를테면 “선생님이 차별해. 엄마가 차별해. 성별 임금격차 학력차별 너무 심각하지?” 이런 모든 말에 차별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것을 어떤 나의 개인적인 경험과 연결시키는 그 언어는 비어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경험들과. 그러니까 결국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하자면 그 혐오의 표적이 되는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권리를 잃는 그 순간에 할 말을 찾기가 어려운 조건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 왜 그럴까? (47:24)

[차별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차별이라는 게 단순화해서 이야기할 수 없긴 하지만. 차별이 작동하는 방식을 약간 도식화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어쨌든 구분해요. 여성과 남성. 흑인과 백인. 노인과 청소년. 그리고 이렇게 구분되는 집단에는 열등한 특징이 부여됩니다. 여성은 체력이 약해. 흑인은 게을러. 이런 식인거죠.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들을 형성하는데요 그리고 나면 실제로 모든 사람이 누려 마땅한 어떤 권리들을 무효화하는 말들이 생깁니다. 체력이 약해서 일 할 수 있겠어? 여성인 내가 체력이 어떤지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은거죠 여성이라서 외근을 피할거야. 이 일은 해외출장이 많아서 여성에게 부적합해. 등등과 같은 것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제도화됩니다. 성별분리채용 같은 것 있잖아요. 너무 생각하기에 당연히 차별인 것 같지만 여전히 있는데. 이를테면 소방공무원. 지금은 줄어들었지만 실제로 화재 진화하는 일을 하는 업무에서 많이 배제됐었어요 운전직이라든지. 이게 군대에서의 승진이라든지 다 맞물려있죠 이런 것들이 다 제도화되어 있는데요 이를테면 한국의 군대는 2000년대부터 여성 군인들을 적극적으로 받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여성이 충분히 직업적으로 군에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여전히 거의 되지 않은 것이 사실 올해 수많은 성폭력 관련된 사건 소식들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죠.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몇 년전까지만 해도 여성을 전방에 배치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전방배치 경력이 당연히 계급이 올라가는데 작용하겠죠. 험한 곳에서 위험한 일을 한 사람이 더 높은 계급으로. 이것 당연히 승진차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규정화되어 있었던거죠 차별이지만 이런 식으로 제도화되다보면 그게 자연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여성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로부터 배제되다보니 당연히 잘나가는 정치인, 교수 기업가 다 남자의 얼굴이고. 심지어 군대가는 것도 남성이야 경제를 일으키는 건 다 남성이야 사실 이런 식의 역사가 이미지화되잖아요. 그런데 여성에게도 한국사가 그런가? 그렇지 않은거죠 모두에게 기회가 열렸고. 짧은 시간에 경제가 성장한 나라라고 하지만. 여성은 여전히 임금수준이 낮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빈곤율에 있어서도 여성빈곤율이 높죠 이게 이를 테면 소수인

종이 겪는 문제 장애인들이 겪는 문제 유사하게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 흑인과 백인이라는 구분이 자연적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이 지점이 사실은 대개 핵심적이라는 거죠. (50: 53)

### ["노예라서 흑인"]

우리는 이미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예제의 역사를 연구한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흑인이라서 노예가 아니라, 노예라서 흑인이다” 어떤 말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그 사람이 흑인이라서 데려와 노예 일을 시킨 게 아니라, 노예처럼 일을 부러먹어야 하는데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흑인이라는 집단을 구성한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종이 만들어진. 아주 오래전부터 세상에는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몸도 다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흑인이라는 집단이 적극적으로 인종주의 맥락에서 구성된 건 사실 이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골상 (지금은 이런 것을 학문으로 취급하지 않지만) 흑인과 백인의 두개골 용량이 다르고 뇌의 크기가 다르고. 이런 방식으로 두 집단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려는 노력. 사실은 여성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왔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앞선. 비슷한 시기였네요) 어쨌든 여성에 대해서도 학문적으로 몸이 어떻게 달라서 결과적으로 여성과 남성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 왔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여러 사회의 차별적 구조와 관행을 뒷받침했던 거죠 사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인종주의라는 거고 이게 형성되고 나면.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 구분은 대개 본질적인 것으로 여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차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차이를 차별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차이 자체가 차별적인 구조 자체에서 구성된다는 거죠.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예전 오래전 미국에 있었던 출생증명서 양식입니다 누군가 태어났을 때 우리도 행정적으로 등록절차가 있잖아요? 보편적 출생 등록제도가 한국에서 이주관련해 쟁점이 되기도 하는데. 출생 등록할 때 어떤 내용을 기입할까요? 태어난 날짜? 태어난 장소? 혹은 부가 누구고, 모가 누구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겠죠 그 사람들의 존재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팩트를 설명하겠죠. 여기 동그라미 친 항목이 컬러입니다. 인간의 컬러를 적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설명하는데 그렇

게 컬러가 중요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당연히 이런 것은 미국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겠죠? 컬러를 구분해서 사람을 표시한다는. 근데 이때는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피부가 흰 흑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피부가 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흑인이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당대 미국에는 그게 컬러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흑인은 영원한 흑인이다. 한방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흑인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흑인이다 라는 방식으로 인종화를 계속 시도했던 거예요. 피부색이 중요했던 건 아니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피부색은 스펙트럼입니다. 하얀색에서부터 검은색까지 스펙트럼 사이에 어떤 지점에 모든 사람이 배치되어 있어요. 흰색과 검은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구분하기 위해 컬러를 설명하면서 인종을 재생산해왔던 거죠 인종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래서 난민인권활동을 하는 분들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UN기구와 많이 할 거라서 잘 아시겠지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기본 입장은 ‘인종은 없다’ 우리가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긴 하지만. 인종은 없다. 사람은 한 종류이지 그것을 이미 다른 종류의 인간이 있는 것처럼 구분하는 순간에 차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게 기본적인 출발선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도 우리는 여성과 남성이 자연적인 본질적인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특히 성과 관련된. 피부색도 어쨌든 인간이 가진 유전자의 한 부분의 스펙트럼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르게 발현되는 것처럼. x, y 라는 유전자의 스펙트럼 사이에 사실 ‘간성’이라는 존재도 있는 거잖아요? intersex의. 근데 이것을 자연화하고 본질화하기 위해서 간성의 존재는 계속 숨겨져왔죠 그리고 지금 한국처럼 국민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번호같은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더욱 곤혹스러운 게 1번이나 2번으로 설명해야 하니까. 이런 식의 제도로 만들어지게 되는 힘 자체가 사실 차별의 근원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양한 제도가 떠받치고 있다. 그래서 차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존중하지 못해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쳐다봐서 생기는 문제가 차별이라고 하는데 저는 완전히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편견을 만들고 있어요. 끊임없이 남성과 여성이 명확하게 구분된 존재. 흑인과 백인은 다른 인간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지는 이런 제도들을 운영해왔던 게 사실은 미국의 인종차별철폐 운동의 역사에서도 확인이 되고.

가운데 있는 사진은 당시 인종 간 결혼을 법으로 금지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서로 다른 민족, 국가가 다른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게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데 법으로 금지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왜 법으로 금지했을까요? 용납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일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종류인데, 어떻게 같이 섹스를 해? 생각만해도 불결해. 그래서 버스도 분리하고 학교도 분리하고 그런 분리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졌고. 그러면 이런 세계에 태어난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 마주한 세계는 이미 그런 차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 있는 것처럼 'white only' 라는 식당 간판을 봤어 그게 차별이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흑인이라서 못 간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흑인이라서 못 간다고 생각하게 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받는 사람들이 저게 차별이야 라고 말하기까지는 많은 도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그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얼마나 같이 할 수 있냐? 이게 사실은 평등의 정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당연히 너무 못하고 있죠. (58:57)

[배제의 구조가 역사가 된다]

한국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구조화되는 과정에 한국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작년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를 꼭 집어서 코로나 19 검사를 강제로 받으라고 했다가 차별 논란이 되면서 철회했던 일을 기억하시려나요? 나름 뉴스에 나기도 했고. 그래서 방역대책본부에서도 아 그것 잘못됐다. 철회를 시켰고 정부에서도 문제있었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검사를 받게 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특별히 취급하는 절차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차별일까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무래도 밀집된 숙소에 살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기 때문에 감염될 위험도 크고 그래서 검사를 좀 더 받게 해주는 것이라는 지자체의 선한 주장을 어떻게 그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목하는 순간 사실 차별적 효과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라는 존재, 외국인이라는 존재가 이 감염병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를 계속 위협하게 하는 편견을 계속 재생산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느 수준이었냐면은요, 서울시에 외국인 노동자 강제진단 관련된 지침이 발빠르

게 철회되긴 했는데 원래 나왔던 지침에는요 집에서 혼자 일하는 1인 프리랜서 노동자도 외국인이면 검사를 받으라는 게 있었어요. 이 수준인거예요. 사실은 이게 나온 데에는 실제로 올해 초. 작년 말 올해 초에 이주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에서 실제로 이주노동자 사이에 집단감염이 몇 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자체도..” 하면서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확산이 된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외국인이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맥락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외국인 노동자라고 지목하게 되는 순간 서울시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지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외국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지. 서울시 공무원 정도를 하면서 뭔가 그 정도 합리성도 갖추지 못할 정도로 외국인이라는 집단이 이렇게 다루어진다는 것의 심각성. 이런 것들이 당연히 대중적으로는 편견과 혐오를 생산하는 효과를 만들게 되고. (1:02:15)

이 아래사진은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동성간 부부인데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받아달라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분인데요. 지금 한국이 제도적으로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어요. 인종 간 결혼금지법처럼. 법은 없지만 제도적으로 신고를 안 받아주고 있는 행정적인 상태인데요. 왜 안받아줄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할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동성간 결혼을 금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면 안 될 것처럼 제도가 신고를 안받아주니까 사람들이 동성혼 하면 “아 이상해”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자신의 기본적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혹은 혼인할 권리로부터, 혹은 일할 권리로부터 배제되거나 박탈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다보면 차별은 외국인들이 겪는 문제 혹은 동성애자가 겪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데 사실은 문제의 핵심은 “너는 여성이야 너는 성소수자야 너는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혼인할 권리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게 차별이라는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아래에 있는 사진은 왼쪽에 있는 분은 스웨덴. 무슬림 여성이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접촉,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종교적으로 피하려고 했던. 그래서 악수를 하는데 거부를 했던. 악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해고됐나? 그러셨던 분이예요. 그런데 차별이다. 이걸 나의 종교이기 때문에 인정하라. 이렇게 해서 싸우셨던 분인

데. 우리는 이런 분들을 이슬람교를 떠올릴 때 떠올리지 않죠? 남성을 중심으로 떠올리고. 사실은 저렇게 히잡 쓴 여성은 모두 차별당하고. 이슬람 교리는 여성 억압적이어서 이슬람 여성은 모두 고통과 억압 속에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저는 무슬림 여성입니다” 라고 소개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상상하게 되는. 이게 차별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분도 원치 않고 나도 원치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방식으로 관계 맺게 이 사회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 속에서 왼쪽의 빨간 분은 한국의 무슬림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도 별로 상상을 못 하죠 한국의 무슬림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의 개신교 인구가 얼마고 천주교 신자가 몇 명이고 불교 신자가 몇 명인지 압니다. 왜냐면 국가가 인구 조사할 때 종교항목을 넣거든요. 무슬림은 왜 모를까요? 묻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항목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의 무슬림 인구가 15만 명 내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이게 외국 국적이 아니라 한국 국적의 무슬림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 중에는 이슬람 국가에서 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주민을 포함해서 무슬림 인구를 물으면 당연히 훨씬 많겠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무슬림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다는 감각을. 혹은 그런 상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맨에서 무슬림인 난민들이 왔다고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가짜 뉴스나 혹은 완전히 가짜는 아니지만 떠도는 불안 공포 낫선 것을 계속 낫선 것으로 만드는. 이미 낫선 것이었는데 그것을 더 낫설고 위험한 것으로 만들 때 그런 것에 너무 쉽게 휘말리게 됐던 거죠. 이런 식으로 비가시화하고. 등장할 때는 무슬림으로 서만. 성소수자로서만 등장시키는 이 구조가 차별의 구조인 거죠. (1:07:00)

**[핑계 없는 차별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차별인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차별인 줄 모르는 어떤 것들인 채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차별은 일부러 하기가 더 어렵다 자기가 차별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개 어릴 때부터 차별은 일단 나쁜 거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요. 차별이 뭔지 모르지만 차별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별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차별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고도 누구든 차별에 가담하게 되는 구조고. 사실은 이 구조를 바꾸려면 누군가 “그건 차별이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이 너무 중요한거죠.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하면 그래 차별은 나쁜거지. 금지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금지를 어떻게 할지 법으로 꼭 해야돼 혹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마치 차별은 다 알고 있고 금지할 일만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한국 사회에 대한 잘못된 평가인가? 차별을 알아차리는 일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게 한국사회의 차별의 구조를 계속 존속시키는 데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의 사진은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들이 차별 진정을 하던 기자회견 사진인데요. 어떤 차별 진정이었을까요? 승무원의 유니폼 여성 치마만 입는 것 성차별이다. 이 진정을 하기 전까지는 치마만 입었어야 했죠. 항공기가 안전업무이기도 하잖아요 교통 안전 중요한 건데. 안전업무 하기에 불편하고 여성에게 치마만 입으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다. 아시아나항공에서는 고객들이 치마를 입었을 때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끼고 우리 회사에서는 한국적 미를 컨셉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경영권의 영역이지 차별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때는 아시아나 항공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치마만 입은 것을 보면서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나 차별적이고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이를테면 지금 뉴스에서 여성 앵커들이 여전히 안경을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아나운서가 안경을 쓰고 나왔을 때 그게 엄청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차별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누군가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싸우고 나서야 “아 그래 차별이지”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어떤 곳에서 “넌 여성이니까 치마를 입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의하게 되잖아요. 덜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어떻게 더 복돋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로 여러 차별의 핑계들에는 흥미진진한 것들이 많은데 넘어가고요. 이게 중요하다. 이런 핑계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스스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그런 거고. 이건 이런 거고” 라고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하나 없애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럴 때 이것을 차별 받는 사람의 몫으로만 남겨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10:51)

[혐오와 차별에 맞선다는 것은]

왼쪽에 있는 분은 뉴질랜드의 총리인데요. 2019년 뉴질랜드 한 이슬람 사원에서 무

차별 총격 테러가 있었습니다.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오범죄죠. 일종의. 이 일이 있고나서 이 총리의 행동이 세계 시민으로부터 칭송 받았는데요. 일단 본인이 무슬림 신자. 이슬람이 아니었지만 히잡을 착용하고 유가족을 만나고 애도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애도성명을 내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당시에 어쨌든. 여기도 무슬림혐오가 있으니까 무슬림 혐오는 전지구적인. 극우 포퓰리즘에 의해 적극적으로 선동되고 확산되는 게 있어서 한국에 뿌려진 가짜뉴스의 판본들이 비슷하게 전세계를 돌고 있기도 했었죠. 어쨌든 그런 무슬림 가해자를 지지하는 이런 댓글들과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뉴질랜드다운 것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 지지의 메시지들이다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당신들을 지지하는 그 메시지가 뉴질랜드이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우리가 함께 비통해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다. 무슬림이 겪은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뉴질랜드의 총리는 뉴질랜드의 일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정상들. 당신의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함께 맞서달라라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이 차이가 대게 중요한 거예요 성소수자혐오. 성소수자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 이 혐오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보는 것이 시작점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도록 두고 그것은 성소수자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차별의 구조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문제로 만들 것인가? 이게 대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뉴질랜드에서는 이 일이 있고 나서 공식적으로 특검을 꾸리고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진상규명했어요. 뉴질랜드의 민주주의 혹은 국가 전체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보고 진상규명을 했고. 그 보고서를 보면 미리 모의했나?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열심히 찾았는데. 정말 결과적으로 이사람이 거의 단독으로 벌인 일이어서 실제로 막을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 8분뿐이었다 이런 결론이 났나봐요. 대게 안타까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정부의 실수가 있고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한다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런 행동까지 하지 못한 그 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책임들을 스스로 지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때 오른쪽 아래사진은 강서구의 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반대했을 때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무릎을 꿇었죠. 이때 정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은 누구였는가? 국가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겠죠. 특수학교를

건립해서 뭔가 장애인도 누구든 같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못한 책임을 이 부모들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무릎 꿇게 만드는 이런 사회는 안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 책임을 어떻게 사회가 가져올거냐? 이것은 어쨌든 누가 차별했어? 어떤 게 혐오 표현이야?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겪는 일로서 함께 말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차별받은 경험들을 더 많이 말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만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회가 차별을 함께 발견하고 함께 해석하고 함께 대응하고 함께 철폐하는 이 경험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게 차별의 구조를 바꾸는 혹은 혐오의 정치에 맞설 평등의 정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길이 차별금지법이다.  
(1:16:06)

### [통합적인 차별의 개념 제공]

차별금지의 실제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돕고 있느냐를 말씀드리면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그 법의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차별의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별을 받았을 때 뭔가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 그것을 설명할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나 혼자 찾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앞서 차별에 저항하면서 싸워왔던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언어가 있어요. 앞서 미국의 인종분리정책 그 시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흑인초등학교와 백인초등학교를 분리했어요. 이게 또 기념비적인 사건인데. 흑인초등학교에 다녀야했던 사람들이 위헌이다. 차별이다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뭐라 했냐면 “흑인도 학교 다니고 백인도 학교 다니는데 이게 왜 차별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불리한 것은 차별인데. 당시에는 이걸 정당화하는 이유가 됐지만. 그렇게 구분하면서 흑인과 백인이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분리가 차별이다. 라는 것을 긴 시간동안 지금 인권운동이라고 부르는 그 역사가 만들어 온 거예요 그 역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미국에도 인종차별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여전히 인종차별이 심하지만 “그게 차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언어들을 쌓아왔습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에 담기는 거죠. 이를테면 차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재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들이 수많은 싸움을 바탕으로 해서 쌓아온 개념입니다. 이렇게 싸워오니까 이런 문제에 부딪쳤죠. 다시 미국의 이야기를

가져오면, 어떤 한 공장에서 승진에 필요한 자격으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도입했어요. 원래 없었는데. 그런데 흑인 노동자들이 소송을 했어요 이걸 인종차별이다 왜냐?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흑인의 비율이 현저히 적었던거죠. 흑인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요구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승진의 기회로부터 당연히 너무 많은 흑인노동자들이 배제됐던 거죠. 차별적이겠죠? 당연히? 그걸 설명할 언어가 없었는데 그런 것들에 ‘간접차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간접차별 같은 것도 법리적으로 개념화된. ‘차별적 괴롭힘’이 있어요. 이를테면 승진을 안 시킨 것도 아니고 임금도 다 주고 그래. 그런데 오며 가며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에서 심한 것은 ‘출산육아휴직’ 이런 것이기도 한데. “애 낳고 다시 돌아올려고? 이번 기회에 집에서 쉬어~”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휴가를 쓰고 돌아왔는데 일을 주지 않는다거나 도저히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맡기거나 딱히 어떤 이유는 없어. 하지만 너무나 알겠죠? 내가 휴직하고 돌아온 것에 대한 “니 발로 나가라” 이걸 뭐라고 설명하지? 이런 것들을 ‘차별적 괴롭힘’이라고 설명하면서 적대적이거나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이를테면 같은 사무실 안에서 일하는데 “흑인들은 이렇지 흑은 게이들은 이렇지” 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거기서 ‘내가 동료로 인정받지 못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어떤 환경. 그래서 결과적으로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어떤 불리한 조건에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행위도 차별이다 라고 하면서 차별적 괴롭힘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harassment가 성적 괴롭힘에서 확장된 것이기도 하지만, 괴롭힘의 개념이 더 분명해진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수많은 곳들에서 이런 것들이 차고차곡 다져온 것이 차별금지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차별은 정말 다를 것 아니에요 하지만 그 경험을 이런 언어에 기대어서 “이건 이래서 차별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차별금지영역과 판단기준]

이게 차별금지법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기능이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지금도 차별 진정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국가인권위원법으로 대체될 수 없는. 차별을 다루는 실체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을 개념을 설명하기는 하지만 이 개념으로 모든 걸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사실 이미 ‘이건 분명 차별이야’ 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시하면서 설명하는 것들이 차별금지법

제3장의 주요한 내용인데요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을 다루지 못하고. 고용, 재할용역, 교육,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 이 4가지 영역에서 차별을 규율하는 행위인데요. 이를테면 고용영역에서 어떤 차별이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면접할 때 차별적으로 질문하는 것. 혹은 임금을 성별을 이유로 다르게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차별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3장 1절, 2절, 3절, 4절의 세부내용으로 예시가 됩니다. 그러면 차별 대응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동아제약 채용 성차별 사건이 면접과정에서 차별적 질문을 한 거잖아요 이런 성차별적 질문도 만연하고. 한국에서는 나이 차별. “그렇게 나이들어서 요즘 젊은 분들과 일하실 수 있겠어요?”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말 아니잖아요. “어머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하셔서 힘드셨겠어요”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요? 면접에서 하면 안 되는 말들이잖아요. 이런 차별들이 진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차별이라고 인정받아 오긴 했지만 아직 면접에서 차별적 질문이 차별이라고 확인해주는 법이 없거든요. 확인해주는 법이 없다고 해서 차별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차별이지만 이런 것들을 법에 땅땅! 박아주면 대응하기가 쉽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차별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차별금지법의 첫 번째 역할이라면. (1:24:13)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

내가 당한 게 차별이야. 라는 걸 알게되는 것만으로도 차별을 주장하며 싸우게 되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 앞서 제가 차별의 구조를 이야기 했지만. 여성으로 태어난. 사실은 여성으로 태어났기 보다는 누군가로 태어난거죠. 그런데 누군가로 태어나는 순간. “아이고 여자아이” 라고 키워지는 어떤 사회에서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온 장애인이든 성소수자든. 말하기 어렵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면 “니가 예민해서 그래. 니가 아직 어려서 그래. 몰라서 그래” 이런 이야기들로 불신당하고 부인당한 경험들이 켜켜이 쌓여왔기 때문에 내가 차별이라고 주장한들. 동의해줄까? 내편에 있어줄까? 내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다면 그렇게 차별당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차별은 차별당했다고 느끼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인용했던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식조사에서는 차별받은 적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혹 떨어졌잖아요 차별받았다는 사람들에게 차별받은 후에 어떻게 하셨냐?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한거죠. 10명 중에 7명은 대응하지 않았습디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건데요. “바뀔 것 같지 않아서. 그리고 말했다가 오히

려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겠다고 용기 내기가 쉽지 않은거죠. 그럴 때 “일단 말하시라.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차별금지법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말하기를 돕는 어떤 기능들을 합니다. (1:26:38)

### [말하기를 돕는 법]

하나는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거죠. 차별 진정을 했거나 소송을 제기했거나 아니면 “어 맞아요 그분 차별받는 것 내가 회사에서 같이 다 봤어요 알아요” 라고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전보를 당한다거나 임금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이런 불이익 조치를 무효화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군가가 겪은 차별의 경험이라는 게 개인의 경험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회의 부정의의 한 순간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사회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일종의 공익신고이기도 하므로 그런 불이익조치로부터 이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조항이 담겨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차별이라고 주장할 때 당연히 세상 모두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게 차별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가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입증책임 배분합니다.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면 “그건 차별이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역할은 차별을 했다고 지목되는 상대방에게 넘기는 입증책임 배분같은 것은 해외 차별금지법 같은 데서는 약간 상식같은 것이라고. 기본입니다. 어쨌든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피해자의 말하기를 돕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으로는 정보공개 의무 인데요. 왼쪽에 있는 자료는 2017년, 2018년 들어서야 알려진 과거의 채용 성차별 사례입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점수를 조작한다거나 이러한. 알고나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알잖아요. 우리가 국민은행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점수도 꽤 괜찮고 이번에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성차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당한 사람은 모르거든요. 이게 사실은 차별을 말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거든요. 차별일 것 같아. 하지만 몰라. 대부분 여기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차별일 것 같아는 아무 근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이상하게 여성지원자가 많이 떨어졌어 라는 소문이. 커뮤니티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돌고. “진짜 이상해 요번에

어디서 인턴 뽑았는데 다 남자래”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주장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정보를 받아 와야죠. 지원자의 성비 서류전형을 통과한 사람의 성비, 면접을 본 사람의 성비, 최종 합격자의 성비 같은 것들이 확인되어야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욱 많은 사람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확인되잖아요. 이런 류의 일들이 많습니다. 차별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정보공개 의무를 두는 거예요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그 청구를 거부하면 안된다 이러한 것들이 피해자의 말하기를 돕는 두 번째 중요한 일이고요. (1:30:36)

### [피해의 회복과 재발방지]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피해자가 차별받았는데도 말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잖아요. “차별이면 우리가 함께 바꿀게” 이게 차별금지법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차별피해자의 피해 회복 뿐만 아니라, 유사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의 중요한 기능이고요 일단 피해를 주장하고 회복까지의 절차로서 차별의 구제제도, 진정을 한다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거나 이런 절차를 만들고. 그리고 “그게 차별이야 그러면 일단 중지해 피해를 원상회복해” 이라하면 해고했으면 “복직시켜 복직이 불가능하면 회복기간에 손해를 배상해”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권고를 하던 명령을 하던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차별을 주장한 그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런 유사한 차별이 다시없게 하기 위해 “너네 기업은 이런 조치를 취해 너네 지자체는 이런 교육을 해 어떤 식당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근데 식당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야. 정부차원에서 이런 게 필요해” 이런 판단들을 함께 하면서 바꾸는 책임을 함께 지는 거죠 이게 이라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당사자라고 여겨지는 그 학생의 부모들만 무릎 꿇게 하는 것과 다른 어떤 사회 역할과 책임을 만드는 과정이고. 거기서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기도 하므로. 이들의 차별시정의무를 특별히 차별금지법 제2장에서 따로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1:32:40)

### [평등은 배제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제일 중요한 원칙인데요 우리가 차별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평등을 약속하면서 성적지향은 빼고 학력은 빼고 이런

식의 논의는 허용될 수 없다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어쨌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것이 반대의 이유가 되는 것처럼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하고 다시는 2007년과 같은 이런 걸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하는 이런 논란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동시에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됨으로써 허용되어온 이 차별이 한국사회를 얼마나 심각하게 혹은 더욱 혐오가 확산되게 만들었는지를 각성하여 빨리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과 함께 우리가 평등을 해보자. (1:33:55)

### [권리는 파이가 아니다]

평등이라는 말이 대개 어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대우받는, 정적인 상태로 여겨지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러 하기가 더 어려운 게 차별이잖아요.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차별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매우 의식적으로 평등을 이루려는 노력을 할 때에만 그 차별이 재생산되는 구조를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그런 상태는 한번에 절대로 오지 않는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런 차별들을 계속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을 계속 밟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한국사회는 평등을 그런 상태로 보기 때문에 자꾸 여성과 남성이 똑같은 것,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똑같은 것,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은 것, 이런 것들을 평등의 어떤 상으로 이미지화하면서 그래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것들이 이를테면 여성이 성차별을 주장하면 남성의 권리를 깎아먹는 것처럼, 장애인이 장애인 차별 없애라고 하면 비장애인들이 마치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장애인들 도와주는 것처럼 이해하는 경향들이 아주 오랜 기간 쌓여왔다 그래서 군복무 논란이 될 때 올해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남성 여성 다 복무해” 여기에 ‘평등복무제’ 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군대가 여전히 그렇게 차별적인 공간이라는 성찰은 전혀 없이 남성이 하는 걸 여성이 하는 게 평등. 이런 식으로 평등이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쌓이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우리가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와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심각해진 이런 불평등의 시대라는 것이 결국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일을 구해도 임금을 충분히 받기 어렵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건에 처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경쟁이 심해지고 그러면서 자꾸 서로의 권리 주장이 이런 내 파이를 깎아먹는 주장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이게 한국에서 공정논란이라든지 평등복무제 논란을 통해서 드러났던 문제들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권리를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모두가 존엄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평등의 질문을 바꾸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사실은 있지도 않은 파이를 놓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싸우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이 싸우는 것처럼 지금 20대들이 겪고 있는 노동의 구조 정말 일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일을 구하더라도 오랜 기간 일하기 어렵고 일부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면 계속 알바라든지 아니면 불안정한 일자리에 처해 있는데 그걸 마치 남성과 여성이 갈등해 힘들게 사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식의 소모적인 논란에 우리의 어떤 평등의 요구가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과 평등의 요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1:37:46)

### [일의 세계와 차별]

사실 차별금지법은 이미 만들어진 해외에서도 그렇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율을 봐도 그렇고 여기 인용한 그래프는 2020년 조사인데 어디서 차별 겪었어요? 차별 겪었다는 사람한테 어디서 차별받았어요? 직장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진정 제일 많은 것. 고용영역입니다. 해외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들에서 제일 차별다툼이 많은 영역도 고용입니다. 일의 세계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 애쓴 분들은 반동성에 세력인데 뒤에서 조용히 편안하게 반대한 집단이 경총이죠.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아까 아시아나 항공의 논리 비슷한 거죠. 내가 고용한 사람들 이렇게 맘대로 쓰겠다는데 내가 여성 싫으면 남성 뽑고. 나이 많은 사람 싫으면 젊은 사람만 뽑고. 혹은 젊은 사람 싫으면 나이 많은 사람 뽑고. 내가 대졸을 뽑겠다는데 너네가 왜 차별이라고 해? 이렇게 어쨌든 기업이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차별관행들을 건드리게 될 거고 그것을 경총의 언어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더 많이 만들겠죠. 그런 게 차별금지법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이를테면 페미니스트 아닌 사람을 모집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광고가 논란이 됐을 때 이게 한국사회의 안티 페미니스트가 얼마나 문제인가?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 공고가 어떻게 저렇게 차별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편의점만 그런가? 여러 곳의 모집이라든지 채용과정에 얼마나 차별이 심각할까? 로 논의가 확장되지 않잖아요. 그냥 페미니스트와 안티페미니스트 혹은 남성과 여성의 갈등으로만 다루고 정작 중

요한 우리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논의는 지워지는 거죠. 저는 변희수 하사님에 대해서도 그 일을 트랜스젠더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군인이 되고자 했던 어떤 사람이 국가로부터 능력을 의심받았던. 혹은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능력을 부정당해야 했던. 이런 어떤 일의 세계에 있는 사람으로 볼 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싸움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의 세계와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같은 문제의식? 네 그렇죠) 저희가 2020년에 발간을 한 평등정책 보고서 첫 번째 주제가 가족이었고 두 번째 주제가 일의 세계 노동이었는데요. 실제로 일의 세계가 우리가 흔히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차별을 경험하는 세계이지만 이 사회에서는 그 문제들을 소수자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노동문제로 다루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모두의 노동할 권리. 노동자의 권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이룰테면 지금 공공기관의 정규직이 누리는 권리가 사실은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하는 권리인데 그게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이해되는. 이게 결국은 우리 모두의 권리를 무화시키는 과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차별에 함께 맞서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자. (1:41:46)

**[우리는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 말이나? 희대의 2011년의 신문광고였나? 저는 획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느리가 남자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낯선 것을 싫게 느끼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며느리? 남자? 이런 어색함을 적극적으로 보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상한 느낌 들어 아니 가만히 생각하면 무슨 상관이야? 싶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며느리가 남자인 게 혼란을 일으킬 거라 생각해요. 며느리가 남자면 얼마 전에 우리가 추석연휴가 있었잖아요? 명절 때 시댁에 가야합니까? 친정에 가야합니까? 그 며느리는. 며느리가 남자면 그 며느리는 부엌에 있어야 할까요? 마루에 있어야 할까요? 며느리가 남자면 보통 시부모가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갈 때 휴가를 내는 사람이 며느리잖아요. 며느리가 남자일 때도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까? 며느리에게. 사실은 이게 가부장제 혹은 이성애적 가족질서를 함께 흔드는 효과가 있고 저는 이게 성차별의 구조를 바꾸는 싸움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

리가 어떤 차별의 문제를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문제로만 생각할 때에도 실제로 차별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그 혼란을 함께 만드는 것이 차별에 맞서는 싸움이기도 하고, 그 혼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각자 내가 이성애자거나 성소수자이거나 고유한 인간으로서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과정이 평등의 싸움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차별을 흔히 평등의 문제로 연결하지만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조건 속에서 이를테면 특수학교 문제도 그렇죠. 사실은 특수학교를 보내면 좋지만, 어떤 특수학교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학교에 가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특수학교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통합교육이 더 좋은 방향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가면 비장애인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서 고민이 되고, 그 선택이 오롯이 그 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의 부모에게만 떠넘겨지는 게 이 세계라면 우리가 차별의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이렇게 가볼 수도 있고, 저렇게 가볼 수도 있고, 그 선택에 따른 또 다른 어떤 결과들이 있겠지만, 그 자리에 가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가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동성혼이 허용된다고 해서 모든 동성커플이 결혼을 선택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모두가 결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자유로울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차별에 맞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길게 돌아왔지만 난민들 역시도 이 한국 사회에서 난민으로만 살지 않잖아요 체류자격이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지 않잖아요. 어떤 난민은 여성이기도 하고 어떤 난민은 가족이 있기도 하고 어떤 난민은 부모의 훈육이 짜증나는 청소년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난민이라는 딱지 안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난민이기 이전에 한 고유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과정으로서 차별금지법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늦어졌는데. (1:46:36)

**[차별금지법 2021년 연내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차별금지법 2021년 넘길 수 없다. 연내 꼭 제정하자. 이 동영상은 연내 봐주셔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함께 연내제정을 외쳐주시면 좋겠는데요. 마치기 전에 홍보차 말씀드리면 제가 첫 강의슬라이드에서 함께 했던 10만행동

국민행동 청원이 국회 안에서 지금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회피하고 있고요 논란이 된다는 이유로. 제 강의를 쪽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혐오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논의해라. 11월 10일까지 본인들이 심사기간을 늘려서 심사를 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는데요. 그때까지 정말 제대로 해라 요구하면서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30일 동안 걸으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라는 이 길이 꼭 부산에서 서울여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등의 길을 낼 수 있는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차별을 받는 우리 자리이고 거기서 내가 차별을 받았다 혹은 누군가의 차별 경험을 그 사람이 말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함께 말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자리들이 평등을 여는 자리가 된다 생각해서 ‘평등길 1110’ 이라는 제목으로 모두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걸어달라는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월10일부터 시작할텐데요 그 30일 동안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평등길 1110’ 해시태그와 함께(1110 11월 10일까지 제대로 해라) 요즘 만보기도 많이 쓰시잖아요 만보기의 1110호 찍힐 때 인증샷 찍고. 평등길 1110 해주셔도 좋고 런닝 하면서 뱃지를 달거나 이런 것도 좋고요. 하여튼 함께 걸어주시고. 올해 안에 11월 10일 이후에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제정까지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행동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끝까지 제정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9:45)